

지역 소식통

정읍시 고부면, 14~15일
두승산 메밀축제 개최

제14회 두승산 청정메밀축제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정읍시 고부면 메밀꽃 축제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개막식 없이 고부면 반대언덕의 아름다운 메밀꽃밭을 배경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축제의 시작은 고려 말 불조 직지심체요절을 편찬한 승려 백운화상을 기리는 백운화상기념제가 열리며, 이외에도 어린이 란타플레이댄스, 아랑고고댄스장구, 퓨전국악 댄스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메밀꽃 네일아트, 한복 대여, 꽃 액세서리 만들기 등 이색 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정읍 지역 농산물 판매 부스를 통해 메밀을 포함한 쌀, 고구마, 땅콩, 보리, 밀 등 지역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축제는 두승산청정메밀축제위원회(위원장 최종찬)에서 주최하고, 정읍시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2007년에 처음 시작, 올해 14회를 맞이하며 풍성한 내용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게 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추석맞이

행복드림반 집중 운영

부안군 사회복지과 행복드림반은 추석맞이를 맞아 9월 2일부터 12일까지 행복드림반을 집중 운영했다. 이번 활동은 행복드림반과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으며, 취약계층에 따뜻한 한가위를 선물하고자 기획되었다.

행복드림반은 활동 기간 동안 누전차단기 점검 및 교체, 거주지 내 불면 사항 해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활동이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참여해 준 자원봉사단과 사회복지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2025년 주요 시책 보고회 개최

정읍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앞두고 혁신적 시책 발굴로 미래 준비

정읍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주요 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학수 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송금현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30개 부서장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발굴된 192건의 신규 시책과 12건의 제안 사업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번 보고회의 핵심 목표는 관행적인 시책을 과감히 폐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장 전반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혁신적 시책을 발굴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알리기 웹툰 공모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 △생고을시장 시설 현대화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건립 △동물콜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유치 △공립수목원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제시됐다. 특히 이학수 시장은 질의응답 후 즉각적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보고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도 신중히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절감된 예산은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에 발굴된 시책사업들에 대해 예산의 적정성과 사업 기대 효과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2025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2029년까지 1800세대 주택 공급

집값 안정 · 인구유출 억제 ·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효과 기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등을 통해 공동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장기적인 주택정책으로 지역에 약 18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먼저,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6년 4월 공동주택건립사업 착공해 2028년 12월 약 300세대의 임대주택과 900세대의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공동주택의 공급은 고창군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집중하고 있다.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2027년 21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정으로 청년층, 신혼부부 등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최근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사업 공모에 선정된 '고창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내 신관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비롯해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을 대상으로 총 200세대의 주택이 2029년에

공급될 예정이다. 200세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다수의 기업들이 고창으로 투자와 인주를 결정하는 큰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고창을 석교리에 건축 중인 광신프로그레스(206호)와 고창읍 읍내리 567-1번지에 건축 중인 환동해 도시형생활주택(76호) 등 민간기업의 공동주택 역시 건설 중이다. 고창군은 지속적인 공동주택 공급 정책으로 현재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다양한 주민들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추석 명절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 나눔

정읍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12일, 생고을시장, 연지사장, 신태인시장 방문해 추석 명절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이학수 시장은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해 지역 농산품과 제수용품, 생필품 등을 구매하며 시장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와의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시장을 방문한 고객들과도 명절 덕담을 나누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날 구매한 물품들은 사회복지시설 6곳과 저소득 취약계층 4가구에 전달됐다. 이는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함께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고자 하는 시의 의지가 담긴 나눔의 일환이다. 이학수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복지시설에 전달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미국 한인사회 교류 · 글로벌 도시 도약

부안군-미국 KCC 한인동포회관, 우호 협약 체결

부안군이 지난 11일(현지 시각 기준)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KCC 한인동포회관과 우호 협약을 체결하며 미국 한인사회와 새로운 교류 시대를 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한인사회에 부안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고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상호 간의 친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관광, 문화,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역사·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지난 5일부터 KCC 한인동포회관 갤러리에서 부안 고려청자 전시전을 개최하고 있다. 해당 전시전은 오는 14일(현지시각



기준)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일평균 약 150여명의 현지 방문객이 찾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한인사회에 부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소개하고 양국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선정

고창군의 '사시시설 김치특화 산업단지'가 전북특별자치도 핵심시책인 '농생명산업 선도지구'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화에 속도를 더하게 됐다. 12일 군에 따르면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위원회를 열고 고창군 사시시설 김치특화 산업단지를 농생명산업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군은 인·허가 의제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에 전북자치도로부터 농생명산업지구지정 고시를 받을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추진의 '농생명산업 선도지구'는 농생명산업의 강점을 살려 특화산업 육성과 국가적 거점화를 꾀하는 사업이다. 각종 특례와 규제 완화로 혁신 기업 유치, 각종 국가 공모사업, 시범사업 테스트베드 등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고창=김영식 기자

앞서 고창군은 올해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사시시설 김치원료 공급단지(310억원))을 비롯해 김치양념가공 시설 구축(신활력플러스사업 21억원), 발효식품 플랫폼 구축(40억원), 특화 품목(김치절임) 6차 산업화(20억원) 등 대외적으로 사업화를 인정받았다. 고창군은 사시시설 김치특화 산업단지를 김치원료 공급단지(대산면 일원), 발효 및 김치양념산업 거점공간(공음면 일원), 발효 및 가공의 연구개발 및 지원센터(고창식품산업연구원, 부안면) 등과 연계·조성해 나갈다. 또한 김치산업 농생명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봄, 가을, 겨울 배추(무) 생산기반 조성과 생산능가 조직화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특산물 기반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9월 20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정읍시는 오는 20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안전한 접종을 위해 대상자별로 접종 시기를 분산해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0일부터는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의 첫 접종 대상자)를 대상 접종이 시작된다. 이어 10월 2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며, 이들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어르신 접종은 연령대별로 나눠 무 료로 제공된다. 75세 이상은 10월 11

일부터, 70~74세는 10월 15일부터, 65~69세는 10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시는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를 제외한 60~64세 시민을 대상으로도 자체 무료 예방접종을 위탁의료기관에서 10월 23일부터(보건가면은 10월 28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접종 대상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보건소 홈페이지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